



Hana Market Weekly

# 달러/원·엔·유로환율·금리·주식

자금시장영업부

2023. 12. 18

본 자료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이며, 하나은행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합니다. 또한 본 자료는 현 경제상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기초 자료로 투자권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며,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정확성 등을 보증한 것은 아닙니다. 본 자료는 당행의 저작물이며 사전승인 없이 본 자료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인용하거나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 주간 달러/원 동향(12/11~12/15) 및 전망



## 주간 달러/원 동향

- 주초, 미국의 견조한 고용지표 확인 후 연준 통화정책 전환 기대 제한과 그에 따른 달러 강세 영향 속 환율은 상승 출발. 이어 FOMC 앞두고 발표될 미국 물가지표의 둔화세 이어질 것이란 기대 반영되며 환율은 소폭 하락
- 중반, 미국 11월 헤드라인 CPI 둔화로 예상치 부합했으나 근원물가 경계감과 FOMC 결과 발표 전 경계감 등에 상승
- 후반,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인하 논의를 시작했음을 언급하는 등 시장 예상보다 더 비둘기적인 스탠스를 드러냄에 따라 조기 금리인하 기대 반영되며 1,290원대로 큰 폭 하락. 이어 수급상 저점 인식에 따른 수입업체 결제수요 유입 영향 등에 소폭 상승 후 1,290원대 중반에서 마감

## 달러/원 전망

- 전주 FOMC 회의의 '24년 금리인하 가능성 시사에도 일부 연준위원들의 시장 금리인하 기대에 제동을 거는 듯한 시사 등으로 달러 지수 상승을 반영하며 전주 후반의 급락 흐름이 다소 되돌림 될 전망
- 여기에 유로존 경기지표 부진에 따른 침체 우려를 반영한 유로 약세 흐름도 달러 강세 지지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다만, 1,300원대 회복 시점에서의 수출업체 달러 매도 우위 가능성 등, 연말에 따른 수급 우위 영향 등이 상단 제한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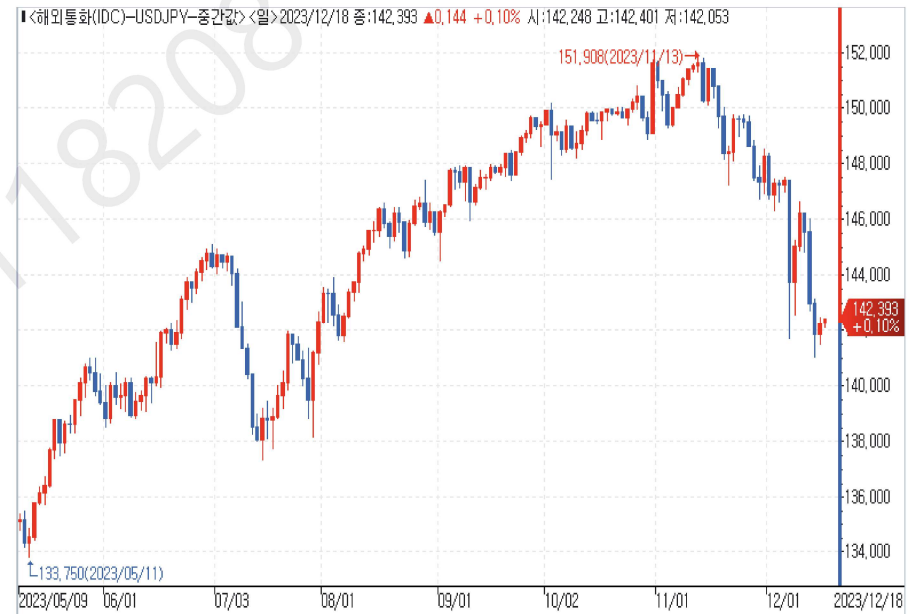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316.0	1,320.1	1,290.0	1,296.5	-19.5

## 예상거래범위

1,295원 ~ 1,315원



# 엔·유로화 동향 (12/11~12/15)



## 유로화 동향

- 주초, 12월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동결 전망됨에 따라 ECB의 조기 금리인하 가능성이 견인한 유로 약세 흐름 제한되면서 유로화 소폭 강세 출발. 이어 독일 경기기대지수 개선으로 유로존 경기침체 우려 일부 완화된 측면 반영되며 강세 지속
- 중반, 12월 FOMC에 대한 비둘기적 평가와 시장 내 연준의 조기 통화정책 피벗 기대감 강화 등에 달러 대비 강세
- 후반, ECB의 금리인하 결정이 예상에 부합했음에도 라가르드 총재의 물가 목표 달성 강조 등 금리인하 기대 차단으로 유로화는 큰 폭의 강세 시현. 이어 주 후반, 유럽 12월 PMI 부진에 유로존 경기침체 리스크 재차 부각된 영향으로 약세 전환하며 마감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0764	1.1009	1.0742	1.0895	+0.01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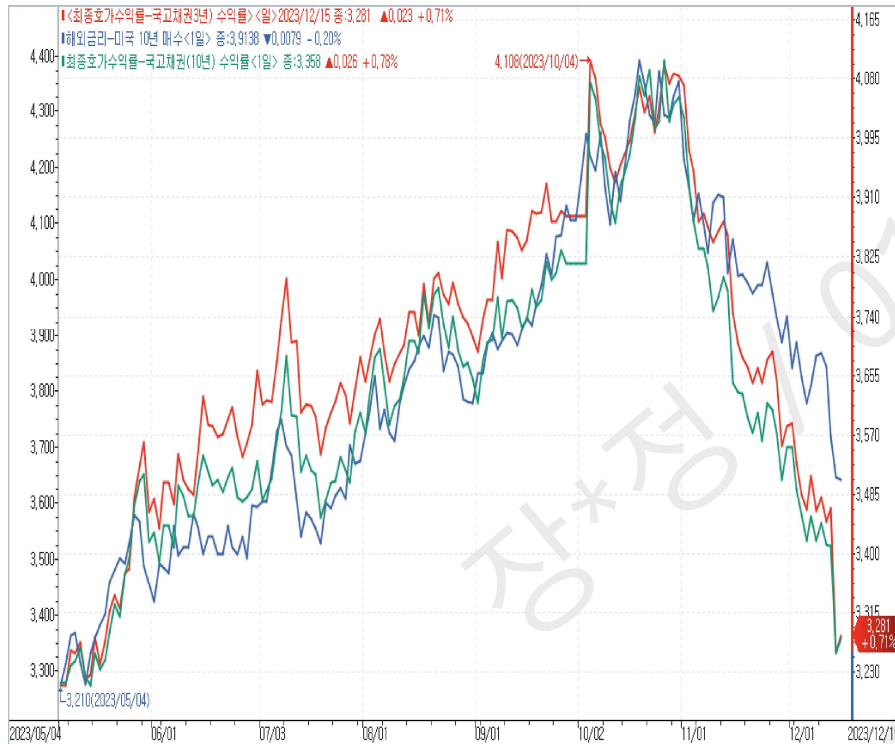
## 엔화 동향

- 주초, BOI 관계자들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 해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지며 BOI 통화정책 수정 기대감 조정된 영향으로 엔화 약세 출발. 이어 미국 CPI 결과가 예상 수준에 대체로 부합하며 연준의 추가 긴축 경계감 제한됨에 따라 달러 대비 강세 전환
- 중반, 파월 연준 의장의 금리인하 가능성 시사에 따른 달러의 급격한 약세와 미 국채수익률 하락 등에 큰 폭의 강세 시현
- 주 후반, 예상보다 매파적인 ECB, BOE의 통화정책회의 결과에 달러 약세 영향 속 엔화는 상대적 강세 흐름 지속. 이어 주 후반, BOI 금융정책결정회의 앞두고 연준 인사의 금리인하 논의는 이르다는 발언 후 연준의 조기 정책 피벗 기대감 일부 조정된 영향으로 약세 전환 후 마감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44.9	146.6	140.6	142.2	-2.7



# 국고채 금리 및 주간 증시 동향 (12/11~12/15)



주간 국고채 금리 동향

- 주초, 미국 실업을 하락 등 전주 고용지표 호조 영향 등을 반영하며 상승 출발 이어, 미국 11월 CPI에 대한 관망 속에 국고채 시장 저가 매수세 유입 등으로 소폭 하락 전환
- 중반 들어, 미 11월 CPI가 전년대비 3.1%로 감소세가 이어지며 시장 예상에 부합. 이에 따라 장기 구간 중심으로 연준 긴축 완화 기대를 반영하며 하락 지속
- 후반 들어, 12월 FOMC 회의의 비둘기적 연준스탠스('24년 75bp 인하 가능성 제시) 속에 점도표 또한 도비시하게 해석된 영향을 반영 국내외 금리 급락 후, 주 후반, 미 국채 금리는 FOMC 회의 영향이 이틀째 이어진 반면, 국고채 금리는 전일 하락 추세를 소폭 되돌리며 숨고르기 양상 속에 마감



주간 증시 동향

- 주초, 미 FOMC 및 CPI 발표 등 굵직한 이벤트를 안둔 상태에서 미 경제의 연착륙 기대감이 높아짐에 따라 기관과 외국인 매수 강화 속 강보합 출발. 이어 뉴욕증시 반도체 지수 강세 등에 따른 국내 반도체 종목 동조화 영향 등으로 상승 추세 지속 시현
- 중반 들어, FOMC에 대한 경계감이 강화되는 가운데 개인과 외국인 매도 강화 등으로 2,510선으로 코스피 후퇴 양상
- 후반 들어, FOMC 회의에서 '24년 세차례 금리인하 가능성을 시사함에 따른 미국 긴축 종료 기대감 속에 1%대 상승 흐름 전환 후, 주 후반, 미 긴축 종료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진 가운데 상승 추세 지속하며 마감